

출애굽 스타트!



나레이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의 일을 더욱 힘들게하여 애굽에서 나갈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 한 번 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모세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겠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바로왕

말이 되니? 너희들이 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니? 너네 일 똑바로 안 하지? 어디서 소품 나갈 생각이야!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면,

바로왕

거부한다면?

모세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릴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릴 것이요! 하하하하
야! 재앙을 내리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나레이션

바로는 모세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가장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고기들이 죽었고,

나레이션

으악 여기도 피, 저기도 피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난 개구리떼와 이가 왕궁과 각 마을로 들어가 애굽 전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나레이션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궁과 온 마을에 수많은 파리떼와 악성 종기가 나타났고,

파리들

위잉~~~ 웅~~~~

나레이션

가축들이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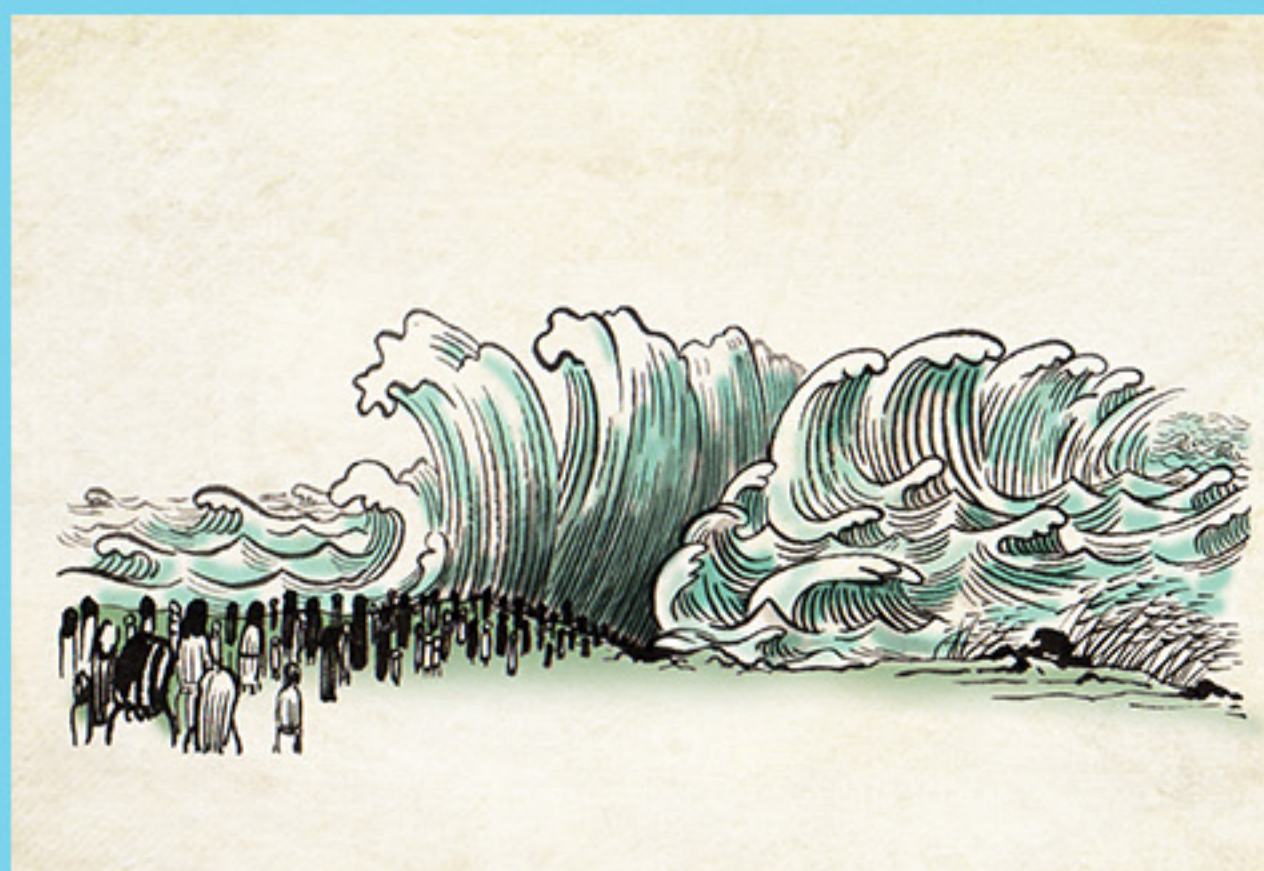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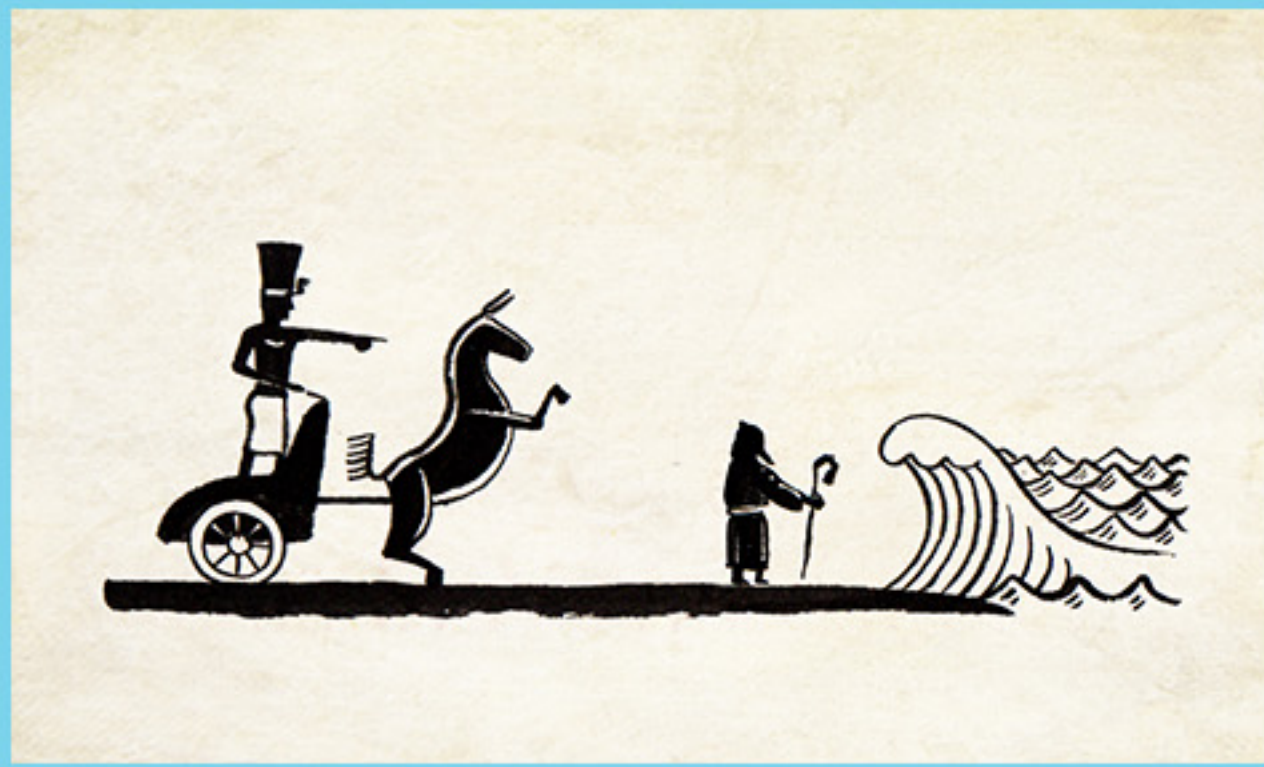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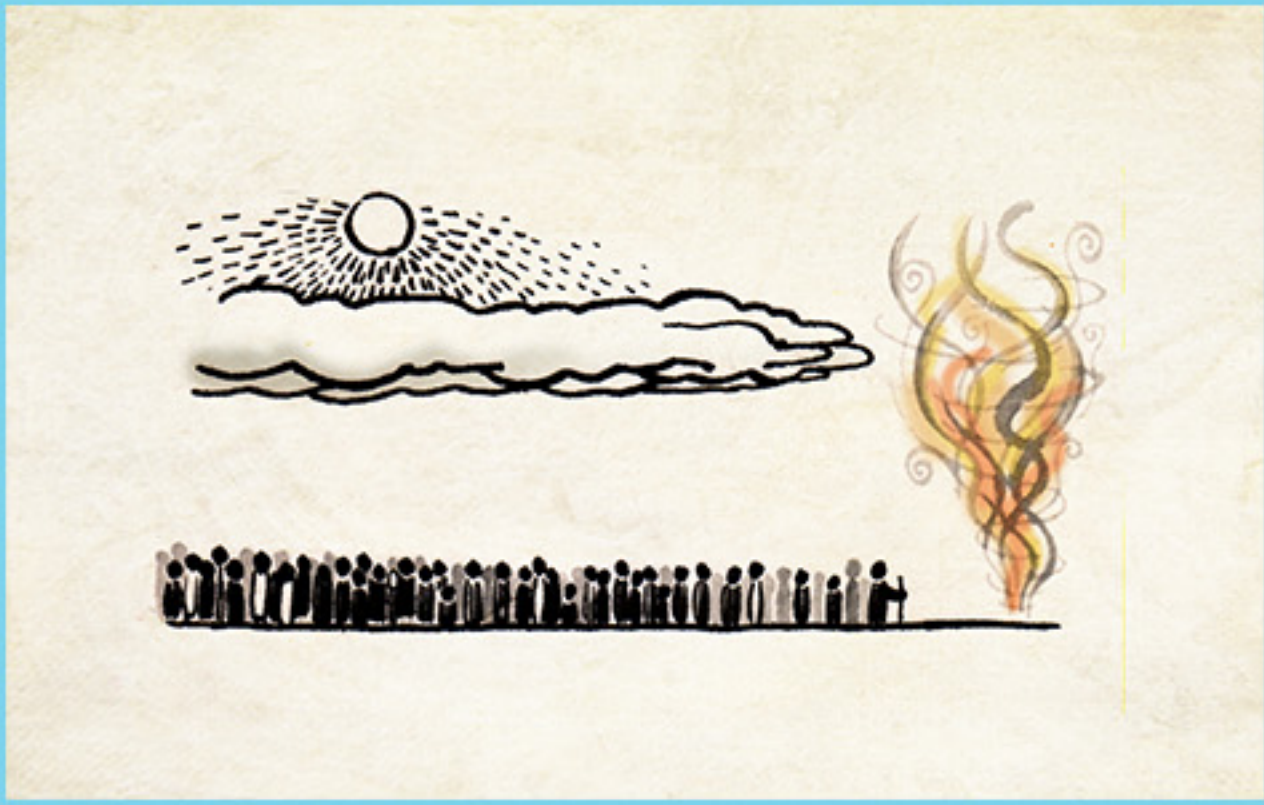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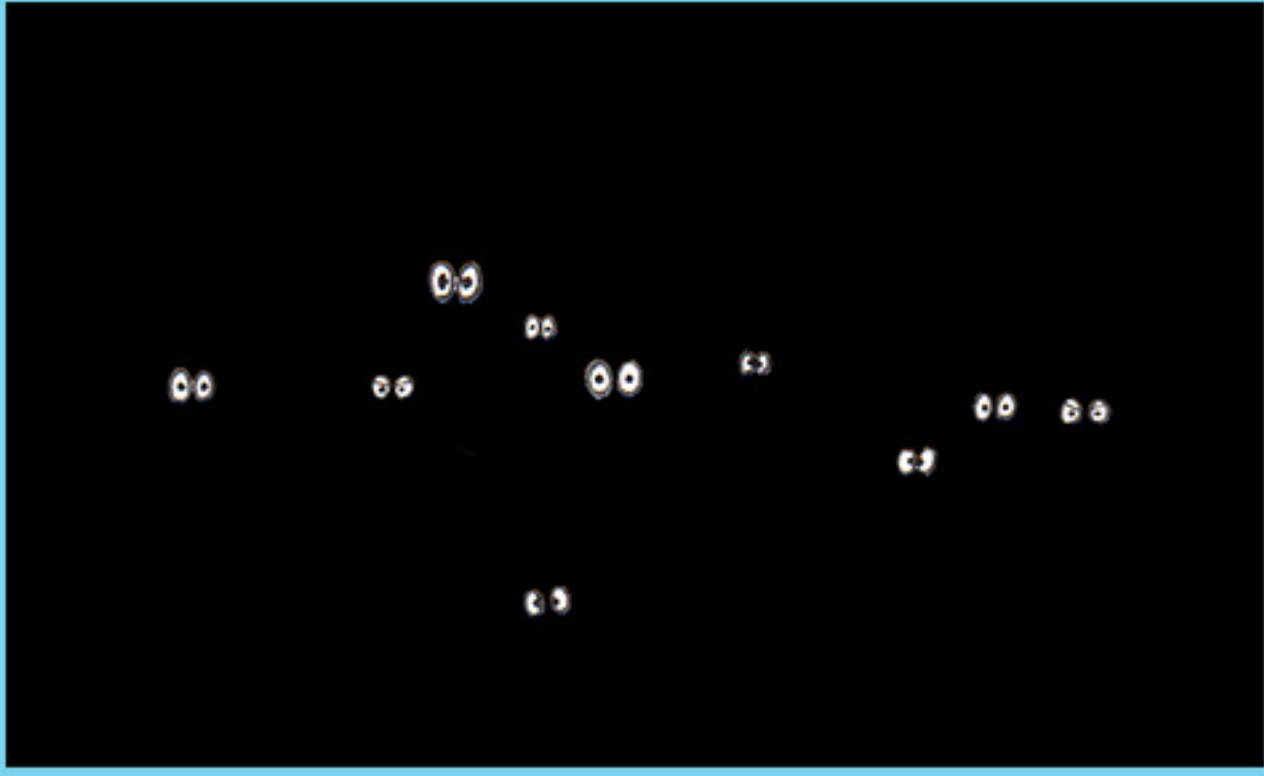
가축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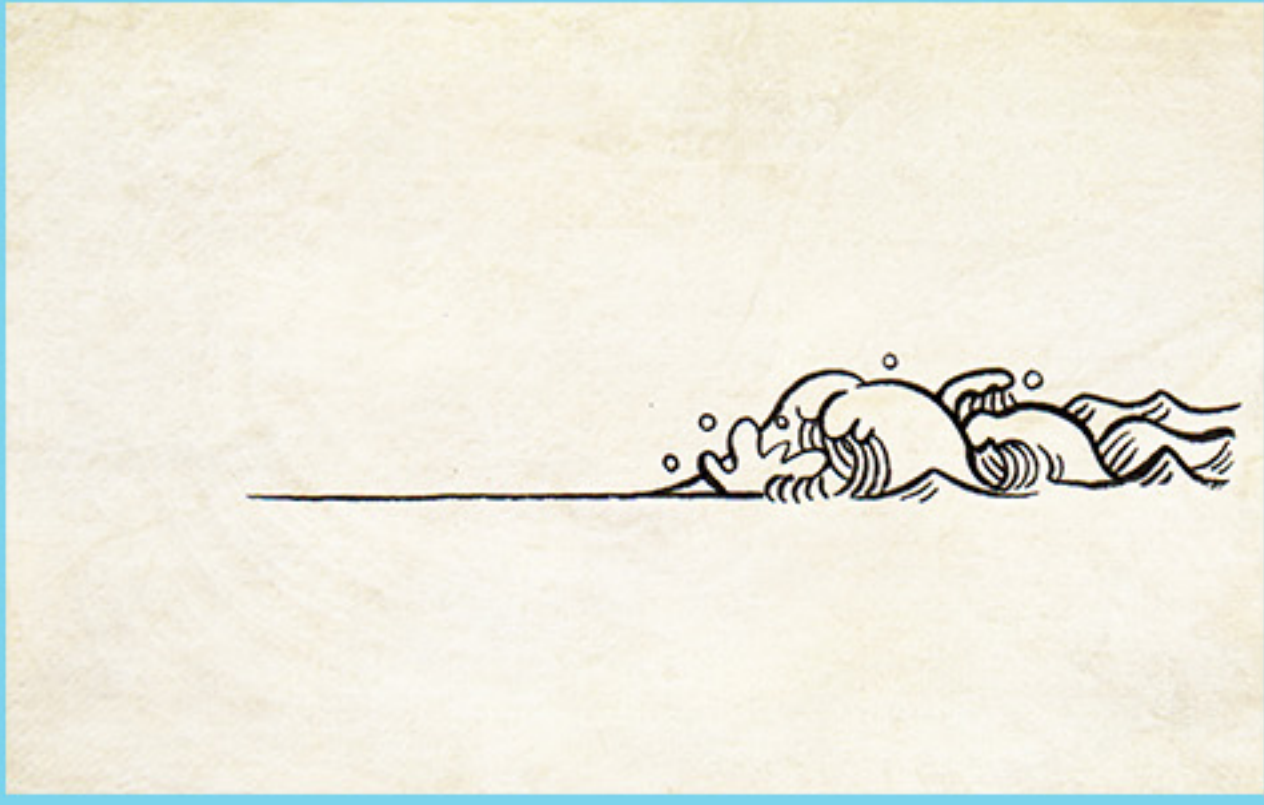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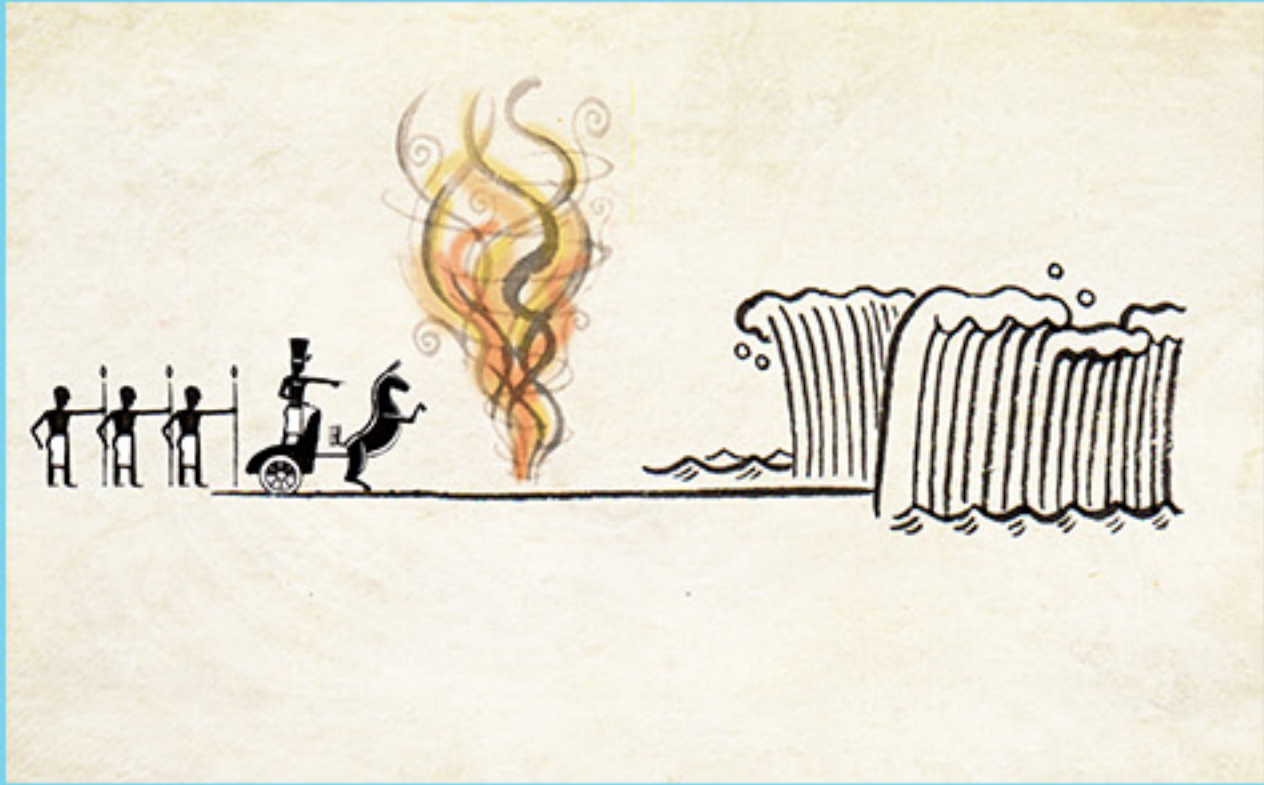
나레이션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하늘을 덮은 메뚜기떼가 모든 농작물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 나레이션** 온 애굽지역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 그래도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히브리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 모세야 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전해라 오늘밤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에서 급히 떠날 채비를 하여라.
-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이후에 너희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
- 나레이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의 장자, 그러니까 큰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두 죽었습니다.
- 온 애굽에 이전까지 없었던 큰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 결국 바로도 마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바로왕** 너희 모든 소유를 들고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가라! 꼴도 보기싫은 이 히브리녀석들!
- 나레이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의 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왕은 생각을 바꿔서 군인들을 이끌고 히브리백성을 추격했습니다.
- 바로왕** 야 이놈들아! 거기 서라! 스톱 스톱 거기 스톱! 스톱~~~
- 아니 이게 뭐야 저 놈들이 우릴 쫓아오잖아?
- 히브리인1** 방금 나왔는데 금방 죽는거야?
- 히브리인2** 모세! 내가 뭐랬어요. 그냥 애굽에 있자고 했잖아요.
- 왜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까?
- 히브리인3** 완전히 상황이...우리 다 죽게 생겼네
- 모세**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오.
-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요.
- 하나님** 모세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으라
- 백성1** 이게 무슨 바람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 백성2** 저게 뭐야?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거야???
- 나레이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에 생긴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 반면 구름기둥에 막혀있던 애굽군대는 구름기둥이 사라지자 갈라진 바다 사이로 히브리백성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나레이션

하지만 바다가 애굽군대를 덮어서
히브리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사히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